

날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앞장'

신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이달 정기인사에 조직 확대 개편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가 오늘자로 정기인사를 실시한다. 신협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오는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 기능 강화와 함께 날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이를 위해 신협중앙회는 기존의 "준법지원부"를 확대 개편해 중앙회와 전국 87개 회원 조합별로 이뤄졌던 금융소비자보호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중앙회가 통합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준법지원부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팀과 자금세탁방지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국민 눈높이에서 금융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는 등 서비스 전반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인다. 또한 나날이 심각해

지는 보이스피싱 및 자금 세탁 위험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빠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범죄 취약계층 보호에도 앞장선다.

이와 함께 현재 신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공제상품(신협보험)의 직접판매 채널을 구축,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게 된다. 이를 위해 직접채널 구축반과 전략상품반을 신설했으며, 상품 경쟁력과 마케팅 채널 다각화를 통해 공제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신협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및 맞춤형 서비스인 금융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화금융지원반을 신설,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를 위한 신협VAN(카드 결제기)서

비스를 고도화해 신협금융밴 가맹점 유치·지원 및 지역화폐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 서민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협은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를 위한 신협VAN(카드 결제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조리기 단말기 AS뿐만 아니라 가계를 비울 수 없는 조합원들을 위한 금융업무 지원을 하고 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직제 개편의 핵심은 금융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는 금융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적극 실천하는 한편, 신협만의 강점을 살려 서민맞춤 보험상품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

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월 1일자 인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중앙본부 부문장/본부장 신임 ▲자금운용본부장 이성영 ▲신협행복나눔부부장 지역금융본부장 조상희 ▲자금운용본부 자금기획본부장 강범수 ▲여신투자심사부부장 여신투자심사실장 이순관
- ◇중앙본부 부서장 정보 ▲총무본부장 추창호 ▲감독본부 감독본부장 이병곤 ▲감독본부 감사본부장 서근철 ▲자금운용본부 투자금융2본부장 최상문 ▲준법지원부 금융소비자보호실장 박용남
- ◇지역본부 팀(반)장 정보 ▲홍보본부 홍보기획팀장 김중수 ▲디지털금융본부 디지털금융팀장 유정근 ▲디지털금융본부 전자금융지원팀장 윤병채 ▲IT기획관리부 인프라운영팀장 김선곤 ▲연수원 교수부장 이경익 ▲

- 감독본부 감독기획팀장 호종환 ▲감독본부 제재심의팀장 이병무 ▲자금기획본부 자금기획팀장 김준석 ▲유가증권운용본부 주식운용팀장 김호겸 ▲투자금융1본부 기업인프라금융1팀장 민창혁 (신임) ▲공제기획본부 계리팀장 이찬숙 (신임) ▲공제기획본부 상품개발팀장 이원형 ▲공제기획본부 신채널사업팀장 지창현 (신임) ▲공제지원서비스본부 손해공제인수팀장 강규선 ▲공제지원서비스본부 계약유지서비스팀장 손예화 ▲금융소비자보호실 금융소비자보호팀장 김중범 ▲금융소비자보호실 자금세탁방지팀장 권오산 (신임) ▲디지털금융본부 특화금융사업반장 최대식 (신임)
- ◇지역본부 팀(반)장 정보 ▲서울지역본부 지원사업팀장 원구홍 (신임) ▲인천경기지역본부 지원사업팀장 윤정희 ▲인천경기지역본부 감독팀장 한주택 ▲인천경기지역본부 조직관리지원반장 심대기 (신임)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 감사대상 전 부문 수상 '꽤'

사회적 가치 실현 내부감사 우수기관 등

국민연금공단(상임감사 이춘구)이 지난달 29일 한국감사협회가 주관하는 '2020 감사대상 시상식'에서 사회적가치실현기관상, 내부감사 우수기관상, 우수감사인상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공단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상생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금융산업 육성·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사회적가치실현기관상'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내부감사 부문에서는 IT기반 데이터 분석기법과 비대면 화상감사를 도입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맞는 감사업무 혁신으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또, 감사실 감독의 과정은 다채널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등 새로운 감사 분석기법을 도입해 내부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감사를 통해 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감사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춘구 상임감사는 "공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감사 혁신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공단 업무 연계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범농협 노불봉사단 농촌 학교에 명절 꾸러미 전달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범농협 노불봉사단(회장 이계순)은 지난달 29일 정읍의 신외중학교를 방문해 전북 쌀로 만든 떡국떡과 사골곰탕 등의 설 명절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설 명절 꾸러미 전달은 농촌지역 학생과 교직원들이 넉넉한 설 명절을 보내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계순 회장은 "코로나가 끝나면 맛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며 "작은 정성으로 마련한 우리 농산물로 학생들이 넉넉한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촌지역 청소년 가구의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전북농협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용진농협, 상호금융예수금 1천억원 달성탑 수상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난달 29일 완주 용진농협을 방문해 상호금융예수금 1천억원 달성탑을 전달했다.

용진농협(조합장 정원철)은 전국 최초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동시에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로컬푸드 동생생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소통하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로 거듭나고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대한민국 로컬푸드로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원철 조합장은 "고객과 조합원께 신뢰받는 농협,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하는 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설 명절 한우선물 고를 때 고기색·근내지방 분포 확인을

농진청, 유의점 소개... 부위별 조리법도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설을 앞두고 대표적인 명절 선물로 꼽히는 한우선물을 고를 때 유의할 점과 한우 보관법, 부위별 조리법을 지난달 22일 소개했다.

정부가 올해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일시 상향하고, 코로나19 여파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대신 선물을 보내는 소비자들이 많아져 한우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우선물을 구입할 때는 고기색, 근내지방 분포, 포장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한다. 고기색은 밝은 선홍색, 지방색은 유백색을 띠면서 윤기가 있는 고기를 고른다. 등심, 안심, 갈비 등은 살코기 속에 근내지방이 가늘고 고르게 분포돼 있는 고기가 감칠맛과 향이 좋다. 한우 원산지과 육질등급, 구성 부위도 확인한다. 가능하면 냉장육으로 구입하고, 포장 안에 육즙이 많이 고여 있는 상품은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한다. 명절에는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유통되기 때문에 배송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늦지 않은지, 포장용기가 파손될 위험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한우는 온도 변화가 크면 육즙 손실이 많아 지므로 받는 즉시 냉장 보관한다. 특히 한번 꺼내 둔 소고기는 산패가 빨리 진행되므로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되도록 빨리 먹는 것이 좋다. 신선육을 진공 포장하면 압착액을 띄는데 이는 산소결핍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며, 개봉 뒤 30분정도 지나면 선홍색으로 돌아온다.

한우를 비교적 오래 두고 먹으려면, 진공 포장 상태로 김치냉장고(0도~4도)에서 약 14~21일 저장해 자연 숙성시키거나 냉동 보관한다. 목심살, 앞다리살, 보쌈살, 우둔살 등 저지방 부위를 숙성시키면 구이용으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숙성된 고기는 근육 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부드럽고 연해진다. 고기를 냉동 보관할 때는 위생 랩으로 여러 겹 싸거나 지퍼 봉지에 넣고 공기를 최대한 뺀다. 이렇게 하면 수분 증발과 산화를 막아 고기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한우 부위 가운데 안심, 등심, 채끝 등은 구이나 스테이크 요리에 알맞고, 목심과 앞다리살은 불고기용, 사태와 양지는 국이나 탕으로 요리하기에 적당하다. /김윤상 기자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지난달 29일 오전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서 '2021 만학도 장학금 전달식'을 실시했다.

"평생 가슴에 품어온 배움의 꿈 이루게 돼 기뻐요"

전은 장학문화재단, 전북도립여성중고서 '만학도 장학금 전달식'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지난달 29일 오전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서 '2021 만학도 장학금 전달식'을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하게 진행된 이날 전달식은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김영구 이사장, 전북은행 사회공헌부 최강성 부장이 참석했다.

재단은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던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다시 찾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의 영광을

"100년 농협 구현 앞장서자" | 전북농협, 신년 업무보고회

4대 중점 추진분야 13개 역점사업 추진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가용자원의 선별과 집중을 통해 '농업인·국민과 함께 하는 전북농협' 구현을 위한 '2021년 신년 업무보고회'를 지난달 29일 개최했다.

이번 업무보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주간 각 단별로 개최했으며, 4대 중점 추진 분야 13개 역점사업을 선정·추진계획을 세웠다.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농산물 유통 수직계열화 강화 ▲상생 로컬푸드 확대 ▲심리향미 브랜드 정착 ▲스마트 업무문화 확산 ▲디지털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 디지털 금융 보급 확대 ▲지자체협력사업 강화 ▲농축협 자산건전성 제고 ▲농축협 종합지원 체계 구축 ▲지역과 함께하는 정정축산 ▲사회적 책임 이행 ▲유연한 조직문화 구현 ▲계몽간 소통강화 등 13개 역점사업을 선정했다.



전북농협은 가용자원의 선별과 집중을 통해 '농업인·국민과 함께 하는 전북농협' 구현을 위한 '2021년 신년 업무보고회'를 지난달 29일 개최했다.

전북농협은 올해도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농산물 수입 확대 및 소비 감소,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지속되는 농업경영상황,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 심화 등 농업과 농협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음에,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전북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는 결의

설 명절 ON/OFF 직거래 장터 운영

LX·도내 사회적 경제기업, 10일까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온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김정렬)가 설을 앞두고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에 나섰다.

LX는 전주 본사에서 전북소재 12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설명절 ON/OFF동시 직거래장터'를 오는 2월 10일까지 개최한다.

본사 1층 로비에 마련된 직거래장터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공공구매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 촉진 ▲지역사회와의 상생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오프(OFF)라인 직거래장터에서는 LX, 전북도,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제이비스토어365 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준비한 생화탕, 구지뽕공수, 명품다시락 등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제품을 홍보·판매한다.



또한 이번 장터의 온(ON)라인 홍보를 위해 참여기업의 우수제품 판매 홍보영상을 공사 유튜브 채널인 LBS(국도인터넷방송국)를 통해 송출한다.

특히 이번 장터 운영은 LX상생발전포럼에서 지역주민 의견인 '지역내 사회적 경제 제품 공공구매 확대 요청'에 따라 마련된 행사로 더욱 의미가 있다. /김윤상 기자

2월 전북 중소기업업황전망지수, 전월대비 1.3p 하락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승찬)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전북지역 소재 12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2월 전북지역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2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FI)는 60.5로 전월대비 1.3p, 전년동월대비 19.3p 하락했다.

전국 SBFI가 69.3으로 전월대비 상승

한 것과 달리 전북도 중소기업인들의 경기심리는 여전히 위축돼 있는 것으로 조사돼,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체감경기를 상승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올해 2월 경기전망은 69.9로 전월 대비 3.1p 하락, 전년동월대비 19.3p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48.2로 전월 대비 0.8p 상승, 전년동

월대비 32.2p 하락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내수판매(56.9→60.2), 영업이익(54.6→56.6), 자금사정(59.2→59.4)전망에서 전월대비 상승했고, 수출(86.4→81.8)전망은 전월에 비해 하락했다.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응답을 살펴보면, '내수부진'(68.0%), '인건비 상승'(46.9%), '자금조달 곤란'(32.0%), '원자재 가격상승'(28.9%), '업체간 과당경쟁'(26.0%), '계절적 비수기'(20.3%)순으로 나타났다. /김윤상 기자